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1월 16일 수요일 (음 10월 17일) 제168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화장실 갈때 나올때 마음 다른 카드사들

알짜카드' 종말의 시대

카드사, 혜택 축소를 넘어 상품 자체도 시장 철수

금감원, 고객 불만에도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해

고객들 유치에만 '혈안' 부실한 상품 설계도 도마위



U-20 월드컵 성공 다짐

전주시는 U-20월드컵대회를 6개월여를 앞두고 15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이선홍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임병찬 전북애항운동본부 총재, 차범근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등 전주시 주요기관·단체장과 자원봉사자, 일반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U-20 월드컵 전주 지원협의회 발대식 및 성공 다짐대회를 가졌다. <관련기사 5면>

혜택이 소비자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게 된 것이다. 하지만 고객들의 쿠폰사용 비율이 예상보다 높아 적자폭이 커지자 결국 출시 6개월 만에 카드발급 중단을 선언하고 말았다.

신한카드는 기존 카드를 없애고 혜택을 크게 줄인 똑같은 이름의 카드를 내놓는 포수를 썼다. '알피엠(RPM)카드'는 전월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주유소에서 11당 100원씩 적립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신한카드는 '알피엠카드'를 없애더니 플러스(+)만 붙여 '알피엠플러스카드'를 슬그머니 내놨다. 플러스가 붙은 이름과 달리 '전월실적이 1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따로 붙여 혜택을 축소시켰다.

하나카드는 일방적으로 상품 혜택을 축소하고 발급을 중단하려다 계획이 무산됐다. 이를 안 고객들이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다.

하나카드가 출시한 '크로스마일카드'는 여행 마니아들에겐 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카드다. 1,500원을 이용할 때

마다 2마일의 항공마일리지 가 쌓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카드 역시 연간 수십억원의 적자가 나자 하나카드는 2013년 마일리지를 1.8마일로 변경한 다음 공문을 인터넷에 띄웠다.

이에 반발한 40만명의 회원들이 집단소송을 걸었고, 결국 올해 3월 "줄어든 마일리지를 소급해 원상복구하고 혜택은 계속유지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사활을 걸고 알짜 카드를 없애려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금융 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전업 카드사의 순이익은 9,4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조877억원)과 견줘 12.8% 감소했다. 늘어나는 포인트 적립비용과 무이자 할부비용이 경영악화에 영향을 미치자 카드사들이 혜택이 많은 카드들부터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 상품혜택 유지 의무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혜택을 줄이는 것이 어려워지자 카드사들이 이에 단종

시키는 방법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업계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카드사들의 '불친절한' 혜택 축소, 단종 등으로 고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금융감독원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시중의 카드상품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고 있는지, 왜 단종이 되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가 카드상품을 유지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다만 카드사가 기존에 없던 카드와 유사한 카드를 출시했는지 등은 심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카드사들의 부실한 카드상품 설계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카드사들이 고객 유치에만 혈안이 돼 이른바 '뉴스팅'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며 "카드상품 설계시점에서 소비자의 카드사용 행태 변화, 경기변동 예측을 면밀히 분석해 최소 5년 이상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재용 기자

김제 길곶봉수대 가치 드러내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시설 기초부 온전하게 남아



'제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된 부안 개화도 봉수→김제 길곶봉수→군산 사자암 봉수로 이어지는 봉수대중 잔존상태가 가장 양호하며, 새만금 일대의 최종심에 위치한 김제 심포리 길곶 봉수대의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길곶봉수대 발굴조사는 김제시가 전액국비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군산대 박물관이 조사를 시행하는 긴급발굴조사로서, 김황중 김제시 문화홍보 축제실장 및 문화재관련 담당자가 지난 14일 긴급발굴조사 상황파악을 위한 현장을 방문했다. 현재 봉수대로서의 기초부가

양호하게 잔존해 있는 상태로, 봉수대주변에 호(濠)를 둘러 보호하는 등 군사적으로 중요한 시설물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인근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땅에서 사용했을 법한 양질의 유물들이 다량 출토되고 있는 실정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했던 공간이었음이 밝혀져 향후 학계의 동향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제=곽노태 기자



"나도 참을 수 없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4일 간부회의에서 "현정권에 대한 시민과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조속히 퇴진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퇴진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주말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현장에 참석한 모습. <관련기사 4면>

유영하 변호사 '박 대통령, 서면조사가 바람직'

민주당 '시간끌기 목적'

박근혜 대통령 측이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까지 검찰 조사를 연기하지는 못을 15일 밝혔다. <관련사건 3면>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를 늦어도 16일에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박 대통령 측이 연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16일 조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리 검토와 변론 준비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방법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면조사가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 변호사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시간끌기 목적이자 검찰수사를 앞두고 또다른 시나리오를 만들어 100만 촛불의 믿음을 꺾어려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뉴스

올해 도내 쌀 생산량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6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북 지역 쌀 생산량은 68만7,000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남(84만6,000톤)과 충남(77만4,000톤)에 이어 많은 생산량으로 경북(57만7,000톤)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도내 쌀 생산량(70만1,000톤)에 비해 1만4,000톤 감소된 수치다.

생산량 감소는 전국적 현상이다. 전국 419만7,000톤은 지난해(432만

도내 쌀 생산량 1만4000톤 줄었지만

올해도 역시 '쌀 풍년'

전남·충남 이어 3번째로 높아 쌀값은 21년만에 최저 수준

7,000톤)보다 13만톤(3%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다만 평년(395만6,000톤)보다는 24만1,000톤 증가했다.

이는 수확기에 내린 잦은 비로 수확 시기가 늦어지면서 쌀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년(395만6000톤)보다 6.1% 증가한 것으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쌀 생산량이 420만톤에 육박하는 등 '대풍'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런 대풍이 지역 농민들에

게는 전혀 반감지 않는데 있다.

4년 연속 풍년에 따른 과잉공급으로 쌀값마저 2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날 5일 기준 쌀값은 20kg 정곡 기준 3만2,337원으로 지난해 25일보다 0.2% 떨어졌다. 80kg 기준으로 12만9,348원으로 1995년 이후 21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앞으로 품종개량과 재배기술 향상, 고온다습한 기후가 지속되면 풍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관삼대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